



무애무 추는 원효

— 소성거사*의 노래

사람들아
춤추면 몸이 활개치고
마음이 날개 단단다
아무 거리낌 없이
날고 싶은 곳을 향해 나는 저 새처럼
날아보자 사람들아
사시사철 어찌 일만 하며 살 수 있나
일만 하며 살다가는 죽어서
일개미로 태어날 걸 일벌로 태어날 걸

나 중아니네
문천교 다리 아래 몸 던졌을 때
나 이미 과거한 걸세
아니, 그 훨씬 이전
요석공주가 내게 장삼 한 벌 선물했을 때
나 선물 받고 너무 좋아, 몸이 달아서……
중생을 구하는 것이 중이거늘
나 그날부로 중노릇 안 하네

공주는 내게 마음을 바쳤지 몸을 주었지

여자의 몸을 안다는 것은 고기 맛을 안다는 것
 나 불법승(佛法僧) 다 깨뜨렸으니
 백 번을 죽어도 사람으로는 못 태어날 걸
 욕정에 눈이 멀어 나를 못 지켰는데
 무얼 깨우치랴 무얼 가르치랴
 중 아니니 나 이제 머리 기르리
 나를 애비로 하여 태어난 자식에게
 무얼 말하랴 나 이제 장삼 벗으리

사람들이 춤추자 나랑 같이
 살아 있기에 춤출 수 있잖은가
 살아 있기에 뉘우칠 수 있잖은가
 내 죄는 저 하늘에 번개 치게 하지만
 살아 있기에 이 두 팔 두 다리로
 춤추는 거란다 일자무식 저잣거리 사람들이
 부처를 알며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
 아무 거리낌 없이 취보자구
 한데 어울려 대화엄의 춤을

*원효는 요석공주와의 사이에 설총을 낳은 뒤 소성거사(小性居士)로 변성명, 머리를 기르고 누더기를 입고 전국을 떠돌았다. 이때 대중 앞에서 춘 춤이 무애무(無碍舞)다